

국내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넘어 신약개발 입지 다진다

삼성에피스홀딩스

바이오시밀러 역량강화하고
신성장동력 발굴 투트랙 전략

셀트리온

면역항암제, 항암 병용요법 등 개발
AI 기반 유전체 탐색 기술 도입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삼성에피스홀딩스와 셀트리온이 기존 바이오시밀러는 물론, 신약개발로 성장 축을 세우고 있다.

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바이오 투자 지주회사로 공식 출범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및 판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운영함과 동시에 별도의 신설 자회사를 통해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개발 사업에 진출한다. 오는 14일까지 신설 자회사를 설립하고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역량 강화와 바이오시밀러 이후의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 자회사는 다양한 치료 접근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전경.

/삼성바이오에피스

법을 확장하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다수의 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해 라이선스 아웃, 공동개발 등을 추진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들어 항체·약물 접합체(ADC) 항암제, 유전자 편집 기술, 희귀질환 치료제 등으로 사업 영역을 늘리며 바이오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지속 육성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11종의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 4종부터, 중앙질환 3종, 안과질환 2종, 신장·혈액질환 1종, 내분비질환 1종까지 파

이프라인 고도화를 이뤄내고 있다. 향후 고령화 인구, 만성질환 환자 등에도 주력해 20개 이상의 제품을 추가하며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 4310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7670억달러로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부문 또한 11%의 성장세가 관측된다”며 “다만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에 달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바이오시밀러가 전체 바이오의약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으



셀트리온.

/셀트리온

로 사업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국내 신약개발 전문 회사들과 공동연구에 나서며 전문성은 보완하고 기술력을 결합해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국내 다중항체 개발 회사 머스트바이오와 면역항암제 신약개발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삼중 항체 구조로 설계된 차세대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며 머스트바이오의 다중항체 플랫폼과 셀트리온의 항체 기술력을 응용한다.

제일약품의 신약개발 자회사 온코네티라퓨틱스와는 항암 병용요법 임상을 준비한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온코네티라퓨틱스의 항암신약후보물질 ‘네스파림’과 셀트리온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맵)’

의 병용요법에 대한 국내 임상2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 난소암에서 기존 표준 치료제인 파프 저해제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요법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셀트리온은 국내 테크바이오 기업 포트레이의 인공지능 기반 유전체 탐색 기술도 도입했다. 암 환자 유래 종양 세포와 주변 미세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암 종별 고유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밝혀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할 수 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자체 파이프라인에서는 ‘CT-P70’ 임상 1상을 진행한다. 올해 안에 CT-P71, CT-P72, CT-P73 등의 임상시험계획을 순차적으로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 측은 “글로벌 항체 의약품 시장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과감한 투자로 신약부문에서도 ‘항체 명가’ 입지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발매되고 있는 짐펜트라는 셀트리온이 2023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 허가를 획득한 첫 제품이다. 짐펜트라(렘시마SC 미국 제품명)는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맵 피하주사(SC) 제형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초콜릿부터 호텔 패키지까지… 가지각색 ‘수능응원’ 선물

유통업계, 연말특수 선점 총력전
보온도시락·보온병 최대 50% 할인
주요 대학가 유명 베이커리 협업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업계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한 수능 마케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간식과 방한용품 등 실속형 할인 행사부터 이색 팝업스토어와 협업 상품,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한 전용 패키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 특수 선점에 나섰다.

이마트는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수능 응원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험생 간식으로 인기 있는 초콜릿, 캔디, 젤리류는 10개 브랜드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페레로로쉐 콜렉션’ 등 인기 선물



갤러리아백화점은 수능 마케팅으로 수험생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가 유명 베이커리 10곳과 협업한다.

/한화갤러리아

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혜선 보인다.

또한 수능 당일 점심을 위한 보온도시락과 보온병은 최대 50% 할인한다. ‘썬모스’ 등 글로벌 브랜드 상품은 물론, 이마트 단독 기획 텀블러 6종도 30% 이상

저렴하게 선보인다. 수능합격 손목시계와 사인펜 등 문구류, 학책 전 품목도 할인한다.

홈플러스도 이달 12일까지 뽀빠로데이 겸 수능 맞이 행사를 열고, 행사 상품을 3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즉시 할인 혜

택을 제공한다.

쿠팡은 이달 13일까지 간식과 선물 3만여 개를 모은 ‘스위트샵’ 기획전을 연다. ‘수능선물’ 테마관을 별도로 마련해 초콜릿, 건강식품부터 도시락, 방한용품까지 다양한 응원 상품을 선보인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이달 13일까지 서울 명품관 식품관 ‘고메이494’에서 ‘수능특집 팝업’을 운영한다. ‘합격해서 우리 다시 만나요’라는 테마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가의 유명 베이커리 10곳을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인다.

1주차에는 서울대 ‘원도넛’, 연세대 ‘라플로레종’, 고려대 ‘베이커리어썬피넛’ 등이 참여하며, 2주차에는 연세대 ‘피터팬1978’, 성균관대 ‘건강한뽕’ 등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행사 기간 고교 학생증을 지참하면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마트24는 지난달 28일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팍스누’와 협업한 ‘약콩두유빵 시리즈’ 2차 라인업 4종을 추가로 선보였다. 맛과 영양은 물론, ‘행운의약콩쿠키 선물세트’ 등 수능 선물 콘셉트를 강화했다.

GS25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유튜브 채널과 협업한 ‘수강 쿠폰 동봉 뽀빠로’를 선보이고 이달 7일 수험생 대상 기획 상품인 찹쌀떡 패키지도 준비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수험생이 사용하기 좋은 기모 타이츠, 방한 마스크 등 용품을 내세우고 있다.

호텔업계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패키지를 내놨다. 신라스테이는 ‘클락아웃, 칠아웃’ 패키지를 출시했다. 내년 2월 12일까지 이용 가능한 이 패키지는 객실 1박, 조식 2인과 함께 다양한 할인 바우처로 구성됐다. 특히 수험표를 지참하면 뷔페 레스토랑 본인 50%, 동반 2인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 체제 전환

삼성에피스홀딩스 인적분할 마무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분할 절차를 마무리하고 ‘순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체제를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개최한 이사회에서 투자 및 자회사 관리 사업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설립하는 인적분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분할보고총회 결의를 결의했다.

분할기일은 11월 1일이며 회사분할 등 기신청 등을 진행한다. 분할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일시 거래정지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으로 분할돼 각각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이다.

이번 분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부 고객사가 제기해 온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고 순수 CDMO로 거듭남으로써 글로벌 톱티어 CDMO로의 도약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화벽을 운영하는 등 각 사업을 엄격하게 분리해 영위했음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고객사와 경쟁하는 데 따른 우려를 받았다. 이번 분할을 통해 해당 우려를 완전히 극복하고 CDMO와 바이오시밀러라는 서로 다른 두 사업에 동시 투자해야 했던 투자자들의 고민 또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순수 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초격차 생산 능력,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 등 3대 성장 전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32년까지 기존 5공장에서 8공장으로 설비를 확충해 제2바이오캡 퍼스를 완성한다.

/이청하 기자

SK바이오팜, ASD 후보물질 개발 박차

〈자폐 스펙트럼 장애〉

美 인테론과 공동연구개발 계약

SK바이오팜은 지난 10월 31일 미국 보스턴 소재 바이오텍 기업 인테론과 ‘신경면역 시스템 조절을 활용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치료제 후보물질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인터루킨-17(IL-17) 작용 촉진제 화합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IL-17이 뇌 신경세포의 IL-17 수용체와 신호 전달 경로에 관여해 자폐 증상

을 개선하는 기전을 규명한다.

양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에 대한 계열 내 최초(퍼스트 인 클래스) 전임상 후보물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초기 유효물질을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성과가 도출될 경우 SK바이오팜은 해당 물질에 대한 독점적 계약 체결 권리를 갖는다.

이번 협업은 SK바이오팜이 중추신경계(CSN)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기존 뇌전증 중심의 신약개발을 차세대 신경면역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이청하 기자